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40원 하락한 1,396.60원에 마감

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.40원 하락한 1,396.6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과 동일한 1,398.00원에 개장했다. 오전장에서 환율은 1,399.40원까지 상승했으나, 미-영 무역협정 발표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했다. 이후 환율은 1,390원대 중반을 횡보하며, 1,396.6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7.0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68.4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98.00	1407.90	1392.40	1396.60	1396.00
	엔화	971.89	976.57	955.33	957.02	-
	유로화	1579.38	1587.98	1565.59	1567.74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2	-7.77	-16.18	-30.86
	결제환율(수입)	-1.45	-6.87	-14.29	-27.4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에...1,40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6.60) 대비 8.40원 상승한 1,402.2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과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. 미국은 영국 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, 그 외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기로 했다. 영국은 미국산 항공기 및 에탄올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며,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발언했다.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, 인도 등을 언급하며 한달 내 모든 관세 협정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. 주요국과의 관세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인덱스는 0.74 상승한 100.64를 기록했다. 뉴욕증시는 관세전쟁 긴장수위 완화 기대 및 트럼프의 주식 매수 권유 발언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폭을 확대하며, 다우지수 +0.62%, S&P +0.58%, 나스닥 +1.07%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위험 선호 분위기 속 달러화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역내 수입 결제 및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 등 실수요 저가매수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수출 및 중공업체 네고 물량 등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00.60 ~ 1410.6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1302.9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.4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1368.45, +254.48p(+0.6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7.4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33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